

지방
자치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김태호 | 경상남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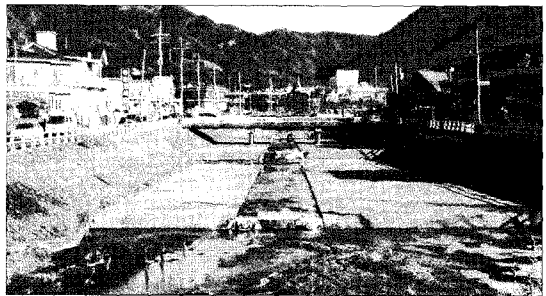
사람이 필요한 고향의 하천, 하천이 필요한 사람들

경상남도는 전 국토의 10.6%인 1만531km²의 면적이며, 그 가운데 약 72%인 7,582km²가 낙동강유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10개의 시와 10개의 군, 그리고 320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동강 유역에는 20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의 약 48%인 148만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낙동강, 황강 등 10개소, 지방하천은 김해 해반천, 거창 위천 등 674개소로서 하천연장은 4,200km이다. 지류에 가까운 소하천은 2,986개소로 하천연장은 3,528km에 달한다.

특히 경남도는 낙동강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감조하천이 많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홍수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질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욱 하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몇십년 전만해도 어느 동네를 가든지 마을 앞에는 깨끗한 실개천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

고, 자연에게는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최근 시골 어느 곳을 가더라도 농로 등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개되어 옛 추억 속으로 묻혀버린 개천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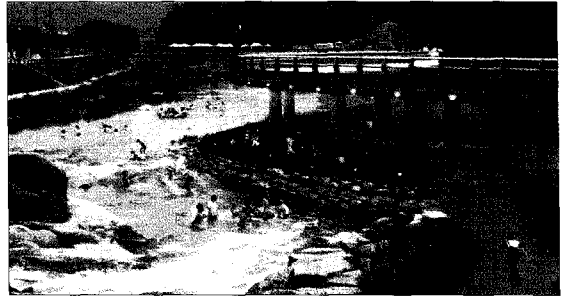
(그림 1) 콘크리트로 포장된 하천(창원천)

경남도에서도 그동안 치수에 중점을 두고 하천을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천환경개선운동이 벌어지면서 자연형 하천 개념이 도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도로 자연형 하천 사업을 통하여 생태계 기능회복의 사업이 본격화됐다. 일본의 경우도 20년 전 일본의 대부분 도심하천은 생태기능을 배제한 채 치수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과거의 도심지에 오염된 하천들이 주를 이뤘다고도 볼 수 있다. 대안으로 일본에서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생태하천은 하천의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지만, 처음 생태하천 조성 당시 자연의 복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하천의 원래 목적인 치수기능을 잃게 됐다. 일본에서도 20년 동안 자연형 하천 및 생태하천을 복원·유지해 오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하천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생태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치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경남도의 하천은 치수와 생태를 잘 조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천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물이 있는 하천변에서 인간의 거주활동이 시작되었다.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동·식물의 생존에도 꼭 필요하다. 때문에 하천은 이수기능뿐 아니라 육지와 물의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상활동 등 물을 이용하는 이수(利水)기능과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수(治水)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 수중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고, 육지 생물에게 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하천 자정작용에 의한 수질 보존을 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므로 하천의 복원 및 유지관리에서도 이들의 인지가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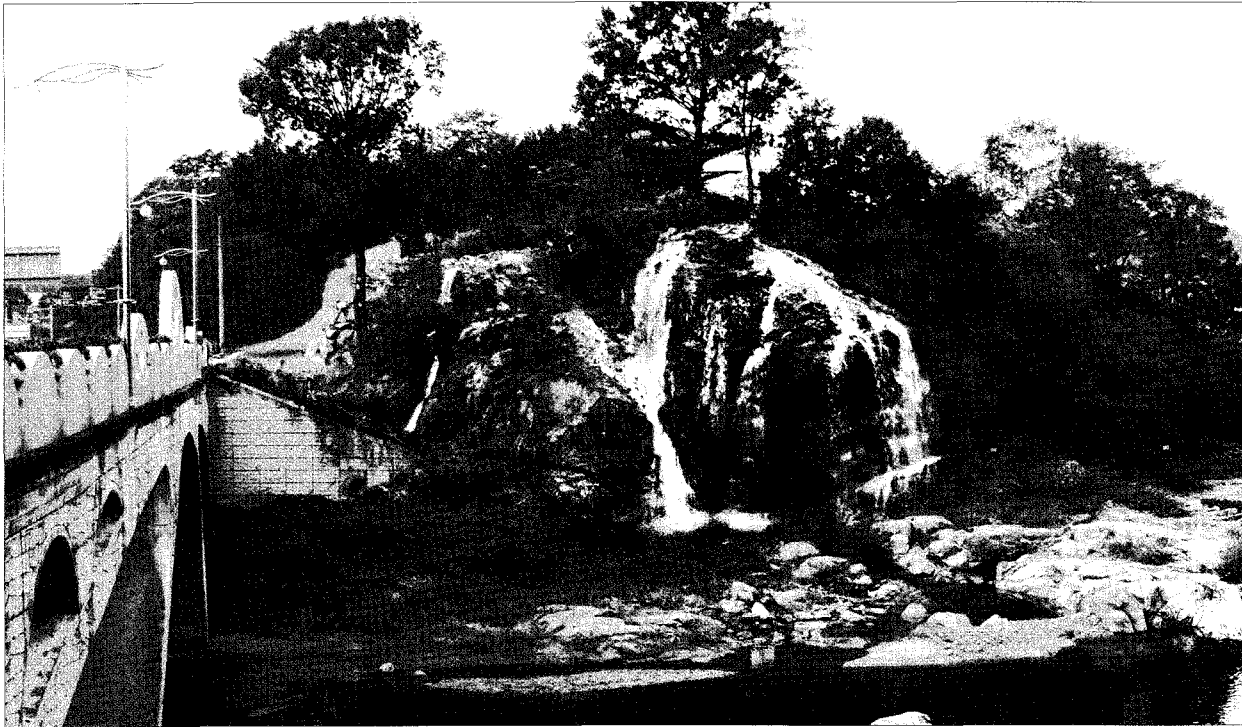
〈그림 2〉 물과 함께하는 고향의 강(함양위천)



〈그림 3〉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창출(함양위천)



〈그림 4〉 수변 식생의 복원(함양위천)



본래 하천은 물 흐르는 대로 흘러서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머물러 습지를 만들다가 바다로 유유히 흘러 들어간다. 인간은 물과 가까이에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서 거주를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지형특성 및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가 발생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제방을 축조하였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보를 설치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토지조사 사업을 비롯해 하천조사가 이뤄지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관리대장이 등장했다. 그 이후 한발 나아가 댐을 건설하게 되었고,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해 용수량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저수지가 생겨나는가 하면, 하천부지가 공장터로 변모했다. 이후 하천은 도심지에서 소외되어 생활하수 및 공업폐수의 이동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환경파괴도 시작됐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형 물오염 사고, 1990년 중반이후 낙동강 폐놀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하천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0년대 들어 자연형 하천 개념이 도입됐다.

이때부터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여전

히 이·치수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환경기능에 대한 지식과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었다. 자연형 하천 사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수질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처음에는 하천정화사업을 통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친수공간을 위하여 공원하천이 대거 등장하면서 자연형 하천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생태계 기능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자연형 하천은 2000년대 이후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도로 본격화됐다. 그러면서 자연형 하천, 자연하천, 생태하천 등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경남도의 창원천이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되었다.

도내 각 지역에서는 하천 되살리기를 위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돼 있고, 이를 위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관·전문가가 협의회를 구성해 하천살리기 주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하천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였다. 이와 같이 하천은 혼자자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 자연과 공존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가 되어 공존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10여년 앞선 1980년대 초반부터 자연형 하천(생태하천) 사업을 벌여온 일본은 비교적 생태하천이 잘 가꾸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하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다치가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km 거리에 해당하는 생태하천을 후원금이나 개인경비로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하천을 유지·보수하고, 관계기관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하천 개발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신문에 하천관리를 위한 일정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하천 주변에 직접 꽃을 심고 관리를 하는 모습이 하천과 매우 깊은 친밀감이 있다.

하천의 주인은 하천이고 하천의 가장 가까운 벗이 사람이 되어 옛 추억속의 하천을 복원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따라서 경남도의 치수정책 방향은 먼저 완벽한 치수기능 확보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쾌적한 하천 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변저류지, 홍수 저류공간,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유역중심으로 치수대책을 강화하

고, 하천주변의 공간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물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하천과 친숙해 있어야 하며 계속 하천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각각의 하천은 특성이 다르므로 경남도의 하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등 시행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는 참여형 하천개발을 위해 교수, 공무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우리하천연구회'를 통해 하천관리기법 및 공법 개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 하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경남도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생 동·식물의 서식을 위한 Biotope을 조성해 지역민이 함께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하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창출하여 선구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